

1987.1 월간 컴퓨터학습

통권39호

편집후기

새해 새 날이 밝았다.

정묘년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화사하다. 컴퓨터 학습도 새로운 내용으로 가득찼다. 표지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시도하였고, 본문 사식도 컴퓨터 사식으로 전환하였다. 김기자는 원고를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면서 감탄을 연발한다.

밀려오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선 나 자신의 시각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다.

〈姜〉

선을 그어놓고 한 편에서 아쉬워하고 그 선만 넘어서면 희망만이 기다릴 것 같은 설레임의 반복들. 올해도 어김없이 어리석음의 반복은 시작되고, 내일은 오늘과 다르리라 기대하며 마무리 한다.

‘컴퓨터 학습’은 내 맘을 알고 있을거야!

〈香〉

겨울은 추워야 맛이 난다고 그랬던가. 확실히 옛말에 틀린 말이 없다. 2개월의 마음준비와 한 달 동안의 뛰어다님에서 탄생한 기사가 추운 겨울에도 마음 든든하게 한다.

한 해의 정리와 또 하나의 빛나는 태양.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끌거리나.

그렇다. 저 해를 보고 또 1년을 맞자.

〈昊〉

한글코드의 표준화도 나오고, 값싼 한국형 PC도 생산되고, 외국에서 애기가 오가는 CD-ROM이나 레이저 프린터 등의 사용도 가능해지고, 회사에서는 팩시밀리로 필요한 자료를 전송받고.... 이러한 것들이 올해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 한가지 국수 삶을 물을 올려놓고 국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이 주어지기를....

〈鍾〉

모두들, 상큼한 새해가 턱밑을 간지럽힌다고 몸부림들이지만, 알미를 정도로 과한 하늘을 두고 형이 갔다. 아무리 태어나는 것은 순서적이고, 죽을때는 無順이지만, 神의 섭리를 인정하기엔 너무 아속하다.

〈海〉

광고색인

경성컴퓨터.....	170
경우시스템.....	화보2
극동시스템.....	화보11
금강컴퓨터.....	화보12
금성통신.....	화보3
동화컴퓨터.....	134
롯데제과.....	표3
삼미컴퓨터.....	화보13
삼성전자.....	화보1
삼성출판사.....	화보14
서울마이컴학원.....	58
세기컴퓨터학원.....	192
소프트빌리지.....	화보4, 16

스태틱소프트.....	화보22
아프로만.....	화보20, 21
왕컴퓨터.....	105
정원컴퓨터.....	화보15
종로서적사무기기상사.....	화보18, 19
컴퓨터타운.....	목차뒤
태양컴퓨터.....	화보8, 9
PROSOFT.....	화보7
한국쓰리엠.....	표2
한국컴퓨터학원.....	215
한국퍼스컴전자.....	화보6
홍익전자.....	152
화신컴퓨터사업부.....	226

발행 겸 편집인/ 민경현, 인쇄인/ 김온규, 등록년월일/ 1983년 7월 28일, 등록번호/ 라-2781, 인쇄일/ 1986년 12월 31일, 발행일/ 1987년 1월 1일, 제5권 제1호 통권39호, 지로 번호 3000272, 대체계좌/ 서울중앙우체국 010017-31-1001346, 발행소/ 주식회사 민컴 서울·마포구 서교동 393-4, 전화/ 333-4101~5, 333-4106, 인쇄소/ 삼성출판인쇄주식회사, 사진식자/ 참미문화사

값 2,500원

■ 본지는 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